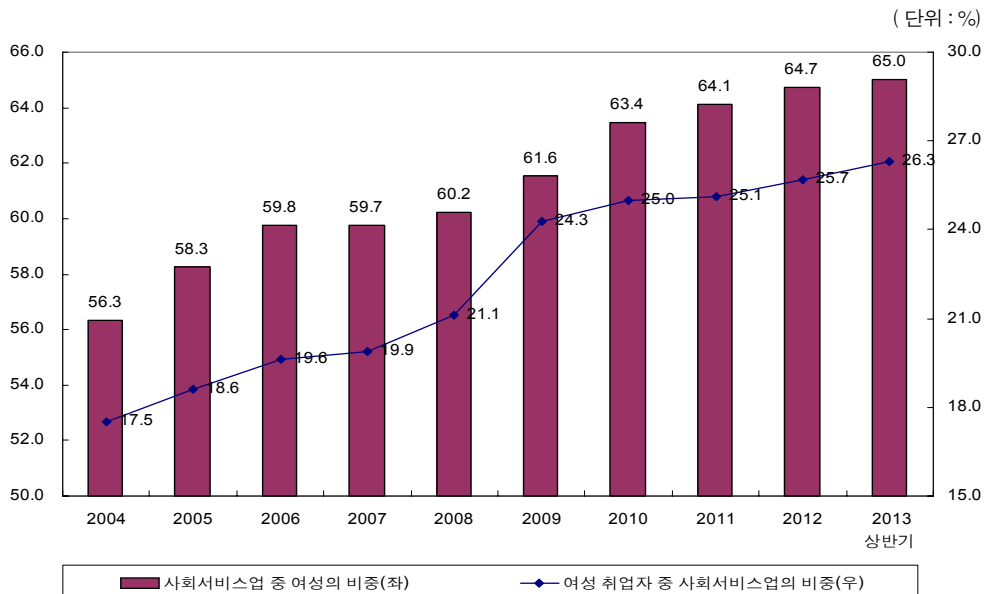


유럽 주요국과 비교한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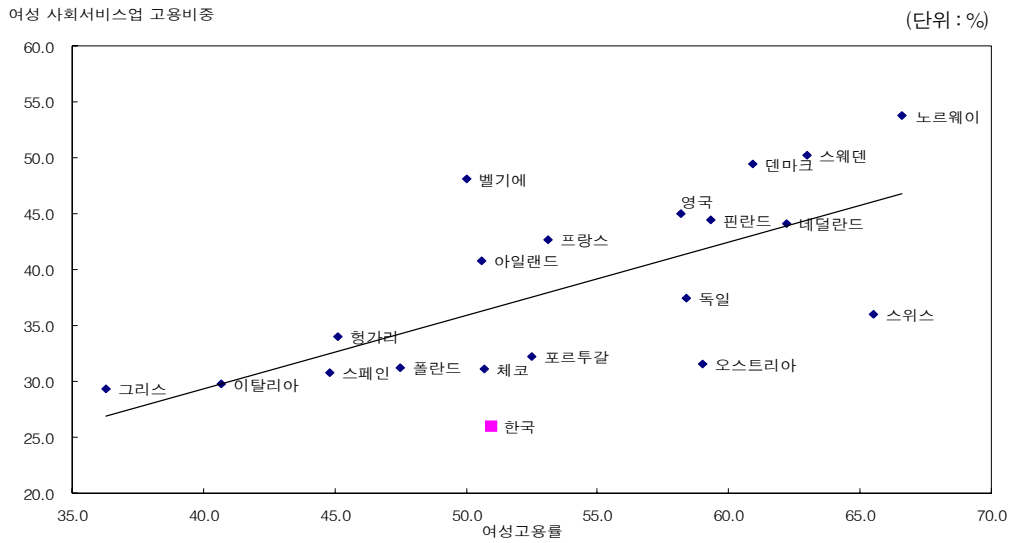
- 최근 여성 사회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.
 -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(O), 교육서비스(P), 보건 및 사회복지업(Q)으로 구성됨.
 - 여성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.5%에서 2009년 24.3%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소폭의 증가를 꾸준히 유지하며 2013년 상반기 26.3%로 여성 취업자의 1/4을 넘는 수준을 보임.
 - 또한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2004년 56.3%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상반기 65.0%를 기록하여 여성 취업자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업 부문이 확장되고 있음.
- 15~74세 EU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을 보면, 둘 간에 밀접한 관계가 나타남(그림 1 참조).

[그림 1] 여성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 비중(우)과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(좌)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, 각 연도.

[그림 2] 주요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(2012)



주 : 1)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(public administration, defence), 교육서비스(education), 보건 및 사회복지업(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)을 포함함.
 2) 네덜란드는 2011년 기준이고, 다른 모든 국가는 2012년 기준임.
 3) 연령은 15~74세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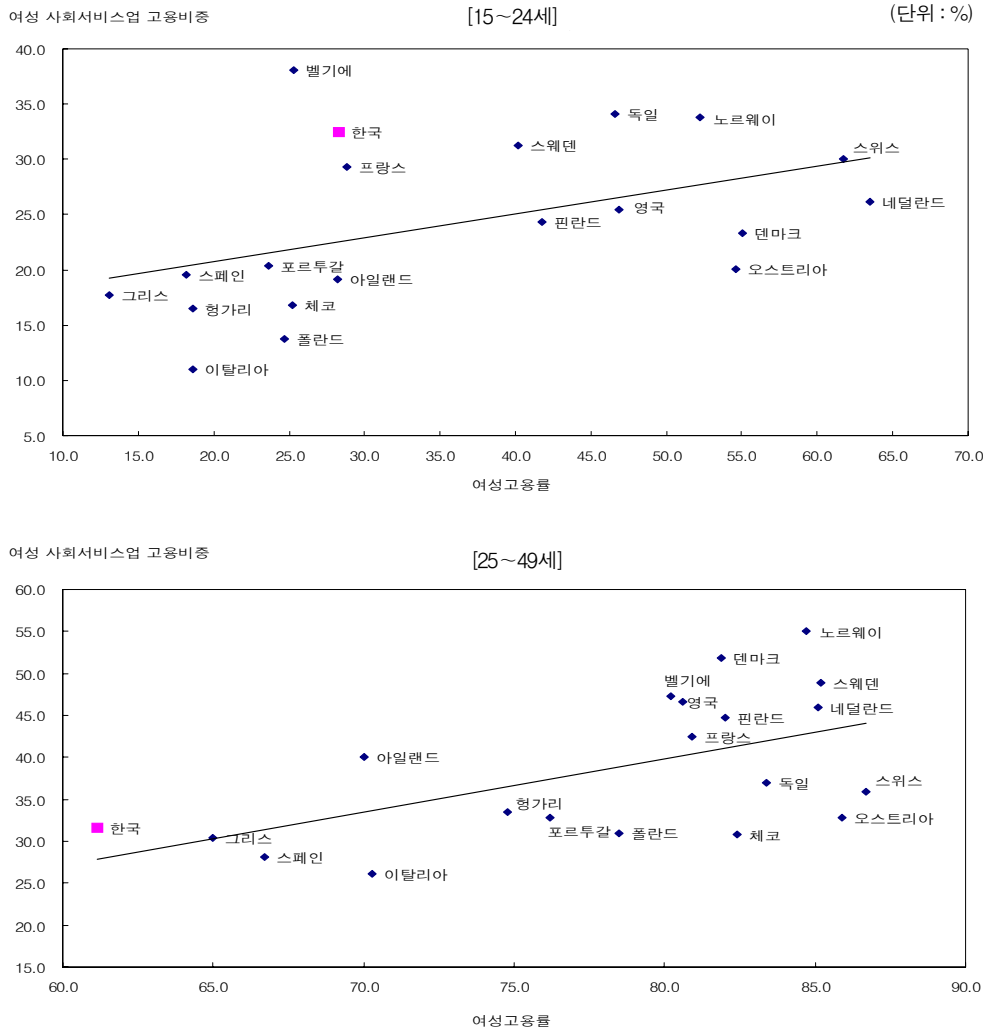
자료 : Eurostat, http://epp.eurostat.ec.europa.eu/portal/page/portal/statistics/search_database
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.

- 국가별로 보면, 대체로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특히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선진국인 스웨덴, 덴마크, 영국, 핀란드, 네덜란드는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이 40~50% 수준에 달함.
 - 스위스, 독일, 오스트리아는 여성 고용률이 높지만 여성 사회서비스업 비중은 30~40% 수준임.
 - 우리나라는 EU 주요국에 비해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이 가장 낮고, 여성 고용률도 낮은 수준에 속함.
- 고용률과 사회서비스업의 관계를 연령별로 나누어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보면, 우리나라 핵심 연령층인 25~49세는 고용률과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25~49세 여성 고용률이 우리나라보다 20%p 이상 높은 국가 중 선진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노르웨이, 스웨덴, 네덜란드, 덴마크, 영국, 프랑스 등의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매우 높은 편임.
 - 반면, 25~49세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고용률이 높

은 국가는 스위스, 독일, 오스트리아, 체코와 이탈리아, 스페인,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군이 포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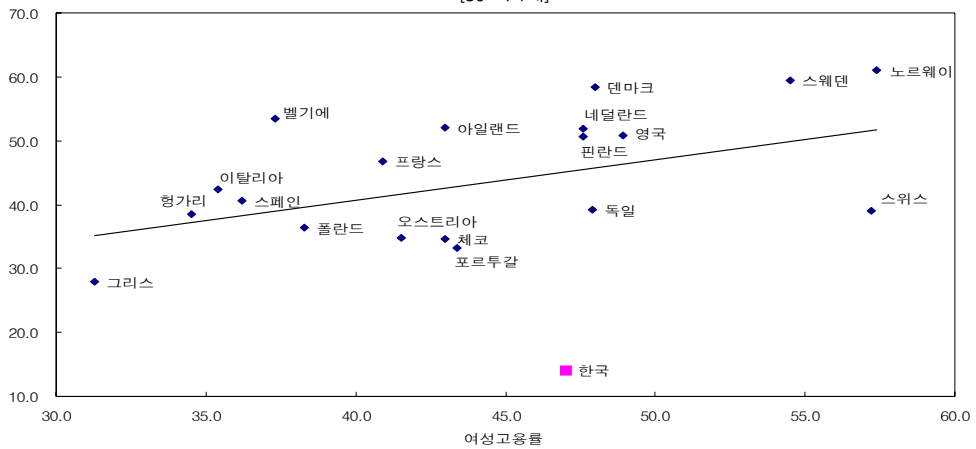
- 한편 15~24세 여성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, 고용률은 30%에 미치지 못함. 이는 상대적으로 긴 교육연수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임.
- 고령층인 50~74세 여성의 경우, 15~24세 여성과 반대로 고용률은 크게 낮지 않지만,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.

[그림 3] 연령별 주요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(2012)



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

[50~74세]



주 : 1)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(public administration, defence), 교육서비스(education), 보건 및 사회복지업(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)을 포함함.

2) 네덜란드는 2011년 기준이고, 다른 모든 국가는 2012년 기준임.

3) 연령은 15~74세 기준.

자료 : Eurostat, http://epp.eurostat.ec.europa.eu/portal/page/portal/statistics/search_database
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.

○ 국가별로 사회서비스업의 특징과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, 대체로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참여가 여성 고용률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
- 과거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사회서비스들이 공식화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.
-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 증가의 여력이 있는 핵심 연령층인 여성 25~49세에 양질의 사회서비스업 일자리가 공급된다면 여성 고용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보임. **KLI**

(정성미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